

■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입시 일정·출제 경향 살펴보니

광주·전남 학생 '지역균형선발제' 노려라

외고나 과학교로 대표되는 특목고(특수목적 고)와 자사고(자립형 사립고) 열풍이 광주에서도 거세다. 명문대 진학률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 월등하다는 것이 첫째 이유다. 이를 학교들은 대개 일단 입학하면 학교에서 거의 모든 것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부모들의 짐을 그만둘 수 있는 점도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다.

광주·전남에는 광주·전남과학고 두 곳의 특목고가 있지만, 다른 지역 학교도 출신지에 관계없이 입학할 수가 있어 중학교 상위권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이름난 특목고나 자사고를 목표로 준비한다. 하지만 성적이 상위권이라 고해서 이들 학교에 쉽게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 원하는 곳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계획없이 준비했을 경우 입학에 실패할 확률도 높다.

특목고반을 운영 중인 광주시 동구 장동 폐르미학원 강승호(45)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본인의 의지"라며 "아무리 성적이 뛰어나도 부모만 원했을 경우 입학에 실패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고 경고했다. 학생의 실력과 의지, 부모의 지원 등 3부자가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 원장의 도움으로 올해 특목고 및 자사고 입시 일정과 경향을 알아본다.

민족사관고등학교

광주·전남 학생 선발 인원 8명으로 늘어

오는 17일 민사고 수학경시대회를 시작으로 2008년도 특목고 입시 일정이 사실상 시작된다. 민사고는 역사가 11년에 불과하지만 다수 학생의 해외 대학 입학 사례 등을 통해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벽은 높다. 지난해의 경우 광주 1명, 전남 1명이 입학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역균형선발제도가 도입돼 광주와 전남에 각각 4명 씩의 입학 인원이 배정된다.

민사고는 내신과 학업계획서, 수학경시대회 성적 등이 포함된 1차 서류전형을 한 뒤 영재판별검사와 면접을 9월 말에 실시한다. 영재판별검사는 국어·사회·인문사회 영역과 수학·과학의 수리과학 영역으로 나눠 시험을 치르며 때에 따라 영어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과목 당 5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한국과학영재학교(옛 부산 영재고)

수학·과학 8시간 걸쳐 시험...집중력 필요

지난해 광주에서 4명의 학생들이 합격했다.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1천800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순 창의·해결력 검사를 실시한다. 수학과 과학 과목을 8시간에 걸쳐 치르기 때문에 문제 푸는 능력 외에 집중력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2차에서 200명을 선발하고 이들은 다시 3박4일 간의 과학 캠프 및 면접 평가를 치른다. 최종 합격자는 144명이며 8월 말 발표된다.

전주 상산고등학교

10월부터 입학 전형...수학 비중 조금 높아

설립자가 '수학의 정석'의 저자 홍성대씨인만큼 수학에 약간의 비중을 더 둔다. 10월 중순부터 입학 전형 일정이 시작된다. 특별 전형은 영어와 수학 두 과목에 대해 실시되고, 일반 전형에서는 국어(30점), 영어(30점), 수학(40점) 등 세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서울권 외국어고

시사문제 출제 경향...신문 등 꾸준히 접해야

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등 서울 6개 외고는 명성만큼 학생들의 선호도도 높다.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고, 명문대 학생들이 월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원외고는 무려 69명의 서울대 학생들을 배출했다.

10월 말에 일반 전형을 실시한다. 입시 구술면접은 6개 학교가 공동 출제하며 10문항 이내가 출제된다. 언어영역 4~6문항, 사회 및 시사영역 3~5문항, 인성분야 1~2문항 등으로 구성된다. 시사적 상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한국외대 부속외고는 내신과 영어, 글로벌 리더 적성검사로 전형을 치른다. 적성검사는 언어·통합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출제되며 심층 면접에서는 역시 시사적인 사회 문제를 종종 다룬다. 신문 등을 통해 꾸준히 흐름을 키워야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 수학은 수리과정보다 창의·사고력을 중시하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다.

광주 과학교등학교

지역 제한 있어 광주 학생들만 응시 가능

광주 과학교는 정원을 지난해 60명에서 올해 80명으로 늘렸다. 지역 제한이 있어 광주 지역 학생들만 응시할 수 있다. 내신성적으로 평가하는 1차 전형 결과는 10월 중순 발표된다. 2차 기초탐구 능력검사는 영어(100점)와 과학(100점) 등 두 과목에 걸쳐 실시되며, 3차 심층면접은 중학교 과정의 수학·과학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검사한다.

영재교육원 출신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했던 제도가 없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영재교육원을 다녔던 학생들이 입학 성공률이 높다. 따라서 광주 과학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은 중학교 때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것이 유리하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최근 광주지역에서도 특목고와 자사고(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원아민 교사와 담소하는 전주 상산고 학생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민사고에 대한 소문과 진실

엄세용 부교장 책 출간 밝혀



민족사관고등학교 엄세용(47·사진) 부교장이 민사고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모아 풀이한 책 '민사고에서 네 꿈을 펼쳐라'(민사고)를 출간했다. 책의 내용을 토대로 민사고에 대해 떠도는 소문과 그 진실을 알아본다.

▲ 자유시간이 많다고요?

평일 6교시 이후, 토요일 2교시 이후, 일요일 모든 시간이 자유시간이다. 학생들은 이 시간에 돌아다니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물론 어떠한 강요도 없다.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민사고는 귀족학교?

학생들은 1인당 연간 1천500여만원(기숙사비 800만원 포함)을 낸다. 기숙사비를 제외하면 연평균 700만원을 부담하는 셈. 일반 사립고의 450만원보다는 많지만 소수 정에 교육 등 민사고의 교육 시스템에 비추어보면 지난치게 비싼 수준이 아니다. 게다가 사교육비 부담이 없어 실질적인 전체 교육비를 따지면 많

기숙사 비용 때문 비싸 보여

전교 1등·영어 만점 보다는

우수한 특기 입증이 더 중요

은 비용이라 할 수 없다. 집안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매년 전체 학생의 25%를 선발해 덕고장학금, 민족장학금, 다산장학금 등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 전교 1등만 가능요?

민사고의 가장 중요한 선발 기준은 '민사고의 교육 목적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학생인가'이다. 따라서 전교 1등, 영어 만점 등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학생 스스로 민사고의 교육 이념을 이해하고 자신과 맞는지 교육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 고등학교 과정은 다 끝내야 하나요?

엄 부교장은 "본인의 능력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겠지만 이는 민사고 입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의 학업적 성취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 외국에서 공부해야 입학하나요?

민사고 학생들의 해외 유학 경험자 비율은 25~30%다. 이는 어학연수나 해외 유학 경험이 입학의 필수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준다. 영어는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늘 반복해서 사용하고 연습하는 방법 외에 특별한 비결이 없다.

▲ 영어만 잘하면 학적?

영어만 잘해서 민사고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 학업 능력이 낮은 상태에서 영어만 잘해서는 결코 학적 할 수 없다. 차라리 영어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특기에서 우수함을 입증하는 것 이 학적 가능성을 높이는 비결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공인증개사

7월 2일
첫진도 개강
핵심요약정리 + 단원문제풀이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본원 227-8003
첨단점 971-0002
※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광주고시학원

BUCK SH
전국대리점 정찰가격입니다

▶▶▶ 이제는, 맞춰입는 기능복으로!

전통 영국신사의 멋과 합리주의 정신 벽수(BUCKISH)의 품격을 만나 보십시오



기성복보다 저렴하고 맞춤복보다 기품있는
영국식 합리주의 맞춤정장, 벽수
벽수만의 자랑 비즈락 맞춤정장
기성복을 사자니 딱 맞는 사이즈가 없고
맞춤정장을 고집하니 가격이 부담스러웠다면
이제 영국식 합리주의의 맞춤정장, 벽수를 만나보십시오.

BUCK SH
벽수유동점

■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57-32
■ 팩스 : 062-514-1745

■ 전화 : 062-514-1741
■ 휴대폰 : 011-9603-1741

웰빙시대의 뉴-리더

국가 공인 농산물품질관리사

전국 유일의 실 강의

- * 공무원 가산점 3%, 농협중앙회 5%, 지역농협 10%
- * 관련업체 자격증 소지자 채용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 농림부에서 자금 지원
- * 취업처: 농협,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업체 등

- 1,2,3회 합격자 90% 이상 취업 -

A+ 현대고시학원

☎ 062) 236-2467

= '07년 합격이 가장 용이한 전남 교육행정직을 잡아라!! =

7·9 급 공무원 특강

= 전남 9급 교육행정직을 하반기 시행 =

① 채용인원: ○○○명(약 50명) 이상 될듯, 합격에 절호의 기회! ② 05년 12월 11일 165명 공채, 1875명 출원 응시율 9:1 경쟁이었다!

= 전남 일반행정직 10월 13일 시험 시행 =

7급 21명·9급 154명(7월 초 확정공고)

개강 7월 2일 주·야반 모집

(현재 예약 접수중)

= 等은 선배 公務員들이 입증하는 높은 합격률이 있습니다. =

考試의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www.mdgosi.co.kr 222-4560

7·9급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www.hanbitgosi.co.kr

여름방학 7·9급 공무원 특강

개설학과: 행정학, 교육행정학, 세무학, 법학, 경찰학, 사회복지학, 군무원, 교양학, 농업학, 산학학, 보건학, 학교국어학, 기술학

이론반 (2개월완성)

영어반 7급 문제풀이 (1개월완성)

농업직 영어반 교수팀 = 월화금 학습반 =

서울시 7월 8일 시험장 자량에 약

기간: 5월 1일 ~ 7월 3일까지 운행: 광복·전원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7월 2일

전남대 후문 북구청 건너편 234-0234 (전직증 첫진도 = 사전예약접수 중)